

#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김용태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 국 문 요 약

최근 들어 범정부적인 정책 지원으로 인해 대학에서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대학 내 창업교육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현실과 더불어 실제적인 창업교육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생 1,721명을 대상으로 창업강좌, 창업특강 및 캠프, 창업 동아리 활동, 창업경진대회 참여 등 다양한 창업교육 참여활동이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 및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 내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역량 및 기업가적 태도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도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창업교육을 통한 대학생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 함양이 창업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대학 내 창업교육이 잠재적 창업자 육성 및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창업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창업교육 확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창업의지

## I. 서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진로교육의 방안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창업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실무적인 기능만을 강조하는 분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기회(Opportunity)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에서도 창업 강좌 및 비교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학 내 창업 강좌는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적인 창업교육 활성화 노력에 비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체계 구성 및 효과에 대한 검증 노력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 내 창업교육이 수요자인 대학생의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Pittaway & Cope, 2007). 또한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관계에 대한 다양한 조절요인에 대한 연구도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대학 내 창업교육 활동이 대학생의 창업의지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학생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 증가를 통해 창업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최종적으로 창업의지를 증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창업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체계 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 2.1 창업교육

#### 2.1.1 창업교육과 기업가적 역량

김기홍·김용태(2014)는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창업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천적인 역량들이 얻어질 수 있으며,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업가의 역량 (Entrepreneurial Ability)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 이 논문은 2016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ytkim@nsu.ac.kr

· 투고일: 2017-02-13 · 수정일: 2017-04-13 · 게재확정일: 2017-04-27

위한 방법으로 이상문·장대성(2004)은 창업교육 없이는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의지가 발생될 수 없고 그릇된 의식과 의지로 인한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초기 창업자를 위한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어져 있다. 미국 MIT나 스탠포드 대학 등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수의 졸업생이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적절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기업가적 역량은 함양될 수 있다 (Raichadhur, 2005).

김용태(2009)에 따르면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크게 기술적 역량, 경영관리 역량, 개인 기업가적 역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영관리역량은 마케팅 역량, 기술역량, 네트워크 역량, 친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국제적 성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기업가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의 성취역량, 창의성 역량, 개념화 역량, 사회적 역량 등을 활용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체계적인 창업교육은 기업가적 역량을 함양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창업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다양한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1. 창업교육은 기업가적 역량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2 창업교육과 기업가적 태도**

창업교육이란 예비 창업자 또는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역량,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재석·이상명, 2015). 이러한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창업 역량 및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의 창업교육은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전인적인 교육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과 기업가적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를 함양시키고 기업가적 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함양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 및 기술 (Skill)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태도 함양을 통해 궁극적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Fayolle, et al., 2006). 창업자가 초기 기업 운영에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기업가적 태도 및 가치관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업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 및 기술 등을 가르칠 수 있으며 사업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James, 2000).

**가설 2. 창업교육은 기업가적 태도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 의지**

**2.2.1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본 논문에서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로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두 번째로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를 통해 창업의지와외의 간접적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창업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바 있다(Heidi, et al., 2011; Kuratko, 2005; Merle et al., 2014; Mwasalwiba, 2010).

Clark(1984)는 창업의지 모델을 정리하고 확장하였으며, 창업의지란 창업 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창업 분야에서 개념적 또는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Crant(1996)는 창업의지는 창업교육의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며 창업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지 또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Pittaway & Cope(2007)의 연구에서도 89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관련 과목 수강 이후 창업을 고려하게 된 학생이 증가한 것을 통해 대학 내 창업교육은 창업의지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창업관련 지식 및 기술은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및 창업의지를 촉진시키며, 특히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학 내의 현장 체험형태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 창업교육은 창업의지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와 창업의지**

기업가적 역량(Entrepreneurial Ability)은 개인이 기업가(Entrepreneur)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창업 역량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를 높인다면 창업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창업 의지는 개인이 창업가적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동기 유발적 요인들 또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인 기업가적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등을 필요로 한다(Diffley, 1982).

일반적으로 태도는 대상, 사람, 기관, 사건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며,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가 더 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인 태도는 창업의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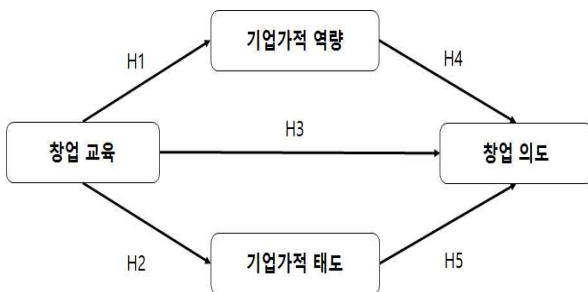
가설 4.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의지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기업가적 태도는 창업의지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실증연구 설계

#### 3.1 연구모형

앞서 살펴 본 창업교육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강좌, 창업특강 및 캠프,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경진대회 참여 등 창업교육의 다양한 요소들이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된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 3.2 자료수집 및 분석: 동일방법편의 검증

본 연구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전국 대학생에게 배포하였고 이 가운데 총 1,803부가 회수되었다. 이 가운데 기재 내용이 부실하거나 결측값 발생과 응답 값의 편중이 심한 설문지 82부를 제외한 총 1,72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검증을 위해 SPSS WIN 18.0을 통해서 기초 분석과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검증은 AMOS 21.0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응답 값을 코딩하고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변수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측정변수의 단일차원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항목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상호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간의 경로계수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기 위한 공분산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실

행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의 모든 문항을 응답자인 대학생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응답했으므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실시하여 설문지의 모든 문항을 가지고 검증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이 7개로 확인되어 지배적인 일반요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도 28.90%로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측정 자료는 동일방법편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3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변수의 신뢰성(Reliability)은 같은 개념을 유사한 또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하더라도 일관된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Bagozzi et al., 2006).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 기준을 적용하여 변수들 측정 문항의 동질적인 구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탐색적 연구에서는 계수 값은 0.60 이상이면 충분하며,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0.80 이상, 중요한 응용 연구 분야는 0.90 이상을 보이는 충분하다(Nunnally, 1978). 아래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 계수 값은 모두 0.60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 내적 일관성이 있는 측정지표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 신뢰성 분석 결과

요 인		Cronbach's Alpha
창업교육		.957
기업가적 역량	인지역량	.921
	대인관계역량	.934
	사업화역량	.858
기업가적 태도	인식과 포부	.888
	자기주도적 삶의 태도	.824
창업 의지		.823

본 연구는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확보를 위한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최소의 요인으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묶이게 하는 주성분 분석 및 한 가지 요인에 적재되는 변수를 줄여 요인의 해석에 중점을 두는 베리맥스 방법(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1,721개 이므로 요인 적재치가 0.50 이상인 변수, 아이젠 값이 1 이상인 변수와 공통성(Communality)이 0.50 이상인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창업교육 변수의 경우는 고유치가 8.459, 누적 설명 분산은 84.589로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창업의지의 요인분석

결과는 고유치가 10.439, 누적 설명 분산은 86.99로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설명력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 IV. 연구분석 결과

###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조사에 총 1,803명이 응답하였으며 유효성 검증 및 클리닝 결과 유효 표본은 1,721명이다. 응답자 중 남성이 988명으로 전체의 57.6%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여성은 727명으로 42.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97.6%가 20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 23~24세가 500명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이외 만 21~22세 494명(28.8%), 만 25~29세 369명(21.5%), 만 20세 이하가 309명(18.0%), 만 30세 이상 41명(2.4%)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석결과 저학년(1~2학년)이 56.2%, 고학년(3~4학년)이 4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학년이 529명으로 31.0%로 가장 많은 응답자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상 지역 대학에서 응답자가 521명(30.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21.5%), 수도권(18.6%), 전라(15.5%), 강원/제주 50명으로 총 2.9%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전공계열별 분석결과 공학계열 응답자가 38.8%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 사회계열(27.2%), 자연과학계열(12.7%) 순으로 나타났다.

###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모형 내 측정변수 간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아래와 같이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였다. Bagozzi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면 측정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시되는 상관계수 간의 절댓값이 0.2 이하인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경미한 수준이며, 0.4 정도는 약한 상관관계, 0.6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7
1	1.0						
2	.543**	1.0					
3	.632**	.653**	1.0				
4	.654**	.625***	.624**	1.0			
5	.543**	.532***	.533**	.323***	1.0		
6	.523***	.553**	.653***	.543***	.524***	1.0	
7	.454***	.692***	.634***	.424***	.475***	.325***	1.0

\*\* : 상관계수  $p < .05$  수준에서 유의, \*\*\* : 상관계수  $p < .01$  수준에서 유의  
 창업교육(1.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2. 인지역량, 3. 대인관계 역량, 4. 사업화 역량)  
 기업가적 태도(5. 인식과 포부, 6. 자기주도적 삶의 태도)  
 창업의지(7. 창업의지)

본 연구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이 0.70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측정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표 2>와 같이 변수들의 예측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변수 간 관계와 일치하며 기준 타당성을 만족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 4.3 연구모형 검증 : 적합도 및 경로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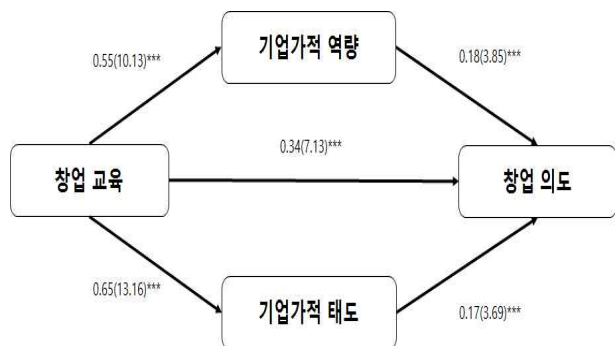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예비적 적합도와 전반적 적합도 및 모형 내부구조 적합도 등으로 구성된다(Bagozzi et al, 1988).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여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기초 부합치(GFI) 및 조정 부합치(AGFI), 원소 간의 평균차이(RMR), 증분지수 및 결정계수 등의 수치가 적절하게 나타나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GFI, AGFI, NFI, CFI 값이 0.8~0.9 이상, RMR 값과 RMSEA 값이 0.05~0.08 이하일 때 바람직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Bagozzi et al, 1988).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아래와 같으며, 그 가운데 카이제곱통계량( $\chi^2=95.9$ )과 자유도(d.f=39)값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모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실제 자료와 연구모형으로 예측한 예측결과와의 자승잔차를 나타내는 기초부합지수(GFI=.938), 모델의 간명성을 설명하는 표준부합지수(NFI=.945) 등에 대한 통계량도 권장수준인 0.9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간명성도 확보하였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구분	절대 적합지수					증분 적합지수
	$\chi^2$	d.f	p	RMR	GFI	NFI
연구모형	95.9	39	.000	.049	.938	.945

GFI(Goodness of Fit Index) : 0.90이상이면 적합도 양호  
 NFI(Normed Fit Index) : 0.90이상이면 적합도 양호  
 RMR(Root-Mean square Residual) : 0.10미만에서 적합도 양호



<그림 4-1> 경로모형 분석

1) 권역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권역을 기준으로 함

### 4.4 가설 검증

위에서 살펴본 상관관계 분석의 경우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그 방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공변량 구조모형분석으로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 검증의 결과는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p값	검증 결과
1	창업교육 ⇒ 기업가적 역량	0.55	10.13	.000	채택
2	창업교육 ⇒ 기업가적 태도	0.65	13.16	.000	채택
3	창업교육 ⇒ 창업의지	0.34	7.13	.000	채택
4	기업가적 역량 ⇒ 창업의지	0.18	3.85	.000	채택
5	기업가적 태도 ⇒ 창업의지	0.17	3.69	.000	채택

가설 1의 검증결과,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0.55, t값=10.13으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 검증결과 유의수준 5%보다 낮게 나타나(p=.000)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어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의 주장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의 검증결과,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 0.65, t값=13.16, p값=.000으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은 채택되어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태도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일수록 기업가적 태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설 3의 검증결과,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 0.34, t값=7.13, p값=.000으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도 채택되어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업의지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가설 4의 검증결과,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 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 0.18, t값=3.85, p값=.000으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도 채택되어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의 증가는 창업 의지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가설 5의 검증결과, 기업가적 태도는 창업 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 0.17, t값=3.69, p값=.000으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도 채택되어 개인의 기업가적 태도는 창업 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표 5> 경로모형의 직·간접 효과분석

구분	변수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b>표준화된 직접효과</b>			
창업교육	-	-	-
기업가적 역량	0.55	-	-
기업가적 태도	0.65	-	-
창업 의지	0.34	0.18	0.17
<b>표준화된 간접효과</b>			
창업교육	-	-	-
기업가적 역량	-	-	-
기업가적 태도	-	-	-
창업 의지	0.26	-	-
<b>표준화된 총 효과</b>			
창업교육	-	-	-
기업가적 역량	0.55	-	-
기업가적 태도	0.65	-	-
창업 의지	0.60	0.18	0.17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 효과			

경로모형상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정리한 결과 위의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0.34)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간접적인 효과(0.26)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가 매개 변수로서 간접적인 효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창업교육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업의지가 증가할 수 있지만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의 함양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 V. 결론

### 5.1 연구결과의 요약

정부의 창업교육 활성화에 인해 많은 창업교육과 지원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로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대학 및 공공기관의 창업 강좌 및 특강,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이 대학생의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한 대학 내 창업교육 활동이 대학생의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앞으로 창업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더 나아가 창업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고,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역량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창업교육이 기업가적 태도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가설 1과 같이 창업교육에 대한 참여가 개인의 기업가적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개개인의 기업가적 역량이 성숙될수록 창업의지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의 기업가적 태도 발전이 창업의지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2 연구결과와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는 잠재적 창업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창업교육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써 창업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범정부인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창업교육을 통해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를 함양시키고 아울러 궁극적으로 창업의지를 증가시켜 유능한 창업가를 육성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창업교육 분야의 정책적 추진 노력에 타당한 논거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앞으로의 창업교육이 실무 중심적인 창업 프로세스 교육을 통한 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차원에서의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다양한 창업교육이 창업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선행하여 개개인의 충분한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가 성숙될 때 보다 더 높은 창업의지를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 측정에 대한 폭넓은 연구 관심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 증가에 따른 효과 측정 및 방향성에 대해 주기적이고 연구되고 있는바 국내에서도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의 효과 변수 및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에 대한 정의 및 측정 변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창업교

육에 대한 정의, 측정 변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창업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향후 학년별, 권역별 비교 및 종단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 대상자의 변화 및 실제 창업률 등을 적용하여 보다 풍부한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김기홍·김용태(2014), 창업 멘토링 교육요인이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5), 33-41.
- 김용태(2009), *창업교육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창업대학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문·장대성(2004), 벤처창업교육과 창업정신 향상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경영교육연구*, 7(1), 7-25.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이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Bagozzi, R. P & Youjae, Y I.(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ethod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Clark, B. W., Davis, C. H., & Harnish, V. C.(1984),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2(3), 26-40.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55.
- Diffley, J. H.(1982), *A Study of Women Business Owners and the Importance of Selected Entrepreneurial Competence Related to Educational Program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ahoma.
- Fayolle A., Gailly B., & Lassas-Clerc N.(2006),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a new methodolog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0(9), 701-720.
- Neck, H. M., & Greene, P. G.(2011), Entrepreneurship education: known worlds and new frontie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55-70.
- Fiet, J. O.(2001), The pedagogical side of entrepreneurship theo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2), 101-117.
- Kim, K. H., & Kim Y. T.(2014), Effect of Start-up Mentoring Educational Factors on Satisfaction wi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5), 33-41.
- Kim, Y. T.(2009), *An Empirical Study of Effect and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 Kuratko, D. F.(2005), *The Emerg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velopment, Trends, and Challeng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5) 577-598.

-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Lee, S. M., & Jang, D. S.(2004), A Comparative Study on Venture Creation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between Korea and USA, *Korea Business Review*,7(1), 7-25.
- Küttim, M., Kallaste, M., Venesaar, U., & Kiis, A.(201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university level and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0, 658-668.
- Mwasalwiba E. S.(2010),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Review of its Objectives, Teaching Methods, and Impact Indicators, *Education+ Training*, 52(1), 20-47.
- Nunally, J.(1978), *Psychometric Methods*, New York; McGraw-Hill.
- O'Connor, A.(2013), A conceptual framework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licy: Meeting government and economic purpo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 546-563.
- Pittaway, L., & Cope, J.(2007),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5(5), 479-510.
- Raichaudhur, A.(2005), *Issu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cision of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Calcutta*, 32(2), July-December.

#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Undergradu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Kim Yong Tae\*\*

## Abstract

In recent years, various typ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ve been taking place in universities due to governmental policy support. The number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ies has increased in quantity, and the interest in realistic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has been increasing. Based on previous research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on entrepreneurial activities such as entrepreneurship lectures, entrepreneurship camps, entrepreneurial club activities, Attitudes and willingness to start university. As a result, First, various typ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ies have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entrepreneurial attitude. Second, it is analyzed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s a positive positive effect on the willingness of university students to start.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entrepreneurial capacity and entrepreneurial attitude of individual college students throug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sitively influenced the entrepreneurial will.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increasing number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univers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potential entrepreneurs and the will of entrepreneurship. Thus, it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expanding various entrepreneurship education.

*Keyword :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Entrepreneurial Attitude, Entrepreneurial Intention*

---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mseoul University Research Grants 2016.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ytkim@nsu.ac.kr